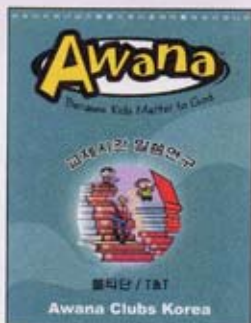


앞을 보지 못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은 사람



■ 목적 : 왜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신체장애를 허락하셨으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패니 크로스비의 장애와 극복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고
2. 장애우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3.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우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 자료 : 칠판, 분필, 눈가리개, 성경구절 기록한 카드.

■ 말씀준비(5분)

칠판에 '신체장애'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읽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말해 보게 합니다.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신체장애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체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못보는 것에 대하여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눈을 가려볼까요?

어린이들에게 눈가리개를 나누어 주어 각자 눈을 가리게 합니다.

자아, 모두 눈을 가렸지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세요.

어린이들로 하여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합니다. 앞을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제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해 보게 합니다.

■ 말씀 연구(5분)

오늘은 패니 크로스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전 생애를 앞을 못보고 지냈습니다. 패니는 18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살았는데 한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가계를 어렵게 꾸려 나갔습니다. 패니는 출생 6주만에 심하게 앓기 시작하더니, 시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약들을 패니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패니의 시력을 완전히 앓아가 버렸습니다.

패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엄마로부터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이들은 소유한 것을 자신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는 대신 패니는 자신이 앞 못보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패니는 8살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볼 수 없을 지라도 내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기로 난 결심했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내겐 얼마나 많은가? 앞을 못보기 때문에 눈물짓고, 한숨지을 수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는 나'

패니의 어린 시절, 눈이 되어 준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할머니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 새, 꽃, 구름, 별, 달 등 또한 성경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패니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패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패니가 구약의 모세 5경, 시편 여러 편, 잠언, 룻기,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패니는 그녀가 성경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일생동안 8,000편 이상의 찬송시와 시들을 썼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할 수도 있었을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가능한 대답으로는 슬퍼함으로,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삶이 비참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 등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이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페니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가능한 대답으로는 불평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비평해 하지 않았다는 등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페니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가능한 대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자신의 장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했다고 하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해석(2~3분)

신체장애우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신체장애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비웃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체장애우라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신체장애가 없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체장애를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를 없애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체의장애우 한사람 한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체장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대살로니가전서 5:18을 읽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8)

우리가 페니 크로스비를 통하여 본 것처럼 우리의 신체장애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장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페니 크로스비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찬송사나 많은 시들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녀의 장애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장애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무엘하 22:31 하반절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삼하22:31b)

■ 말씀 적용(1~2분)

페니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녀가 볼 수 없는 것을 설명해줌으로써 페니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이번 주간에는 자기 주위에 아는 장애우가 있을 때 그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찌라도 다른 장애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